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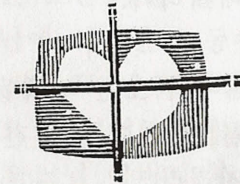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준승치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대상 k-12 수시등록가능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914) 946-2324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연(스테판노)지과 코네티컷 지과대학교 졸업 일리노이스(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 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i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종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기독교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 (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 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1683호

2011, 10, 9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
된 이들은 적다.” (마태오 22,1-14)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일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일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28주일

ㄹ 입당송

(시편 130(129),3-4)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5,6-10)

- 만군의 주님께서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10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23(22),1-3 7.3-4.5.6(● 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1.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2.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3.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4.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ㄹ 제2독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12-14.19-20)

형제 여러분, 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13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9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ㄹ 복 음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1-14<또는 22,1-10>)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
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 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10 그래서 거리에 나가 악한 선한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와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둡-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0/ 9 8시	김 철	홍 승표	홍 명숙	김 미수
11시	최 일환	한 광희	한 소은	최 금연
10/16 8시	김 철중	이 준섭	이 회양	김 미수
11시	이 상식	양 명상	양 정남	이 영자

복 사 : 이 재영 & 조 중훈 안 정훈 & 김 도균

봉헌자 : 정순조&김일규 가족 다음주 : 김만석&박중환 가족

헌금봉사 : 정의의 거울 Pr 다음주 : 은총의 증계자 Pr

운전봉사 : 김 영태 다음주 : 윤 광석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연도, 장례미사에 오신분들(감사미사) : 허스테파노[문호]가족봉헌
박바오로[증환] 가정을 위하여(가정미사) : 신흥원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허 스테파노가족, 임베로니카,

윤베네딕토 가족, 이데니스[창섭], 올뜨레야 일동봉헌
서프란체스카[성화]기일(연미사) : 가족봉헌, 권의진 가족봉헌

양다니엘[명상] 가족봉헌

양나자로[제해]기일(연미사) : 양스테파노[효삼], 양다니엘[명상] 봉헌

조상님을 위한(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임레오[재호](연미사) : 임베로니카 봉헌

박루가[덕수](연미사) : 조요한[용국] 가족봉헌

박시몬(연미사) : 윤포카스 봉헌

강마산(연미사) : 김미카엘[을수] 가족봉헌

김종섭(연미사) : 김미카엘[을수]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성가

입당 : 로사리오의 기도 (성가 270)

봉헌 : 제물 드리니 (성가 342)

성체 : 어린이처럼 (성가 435)

파견 :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성가 68)



교회 소식

(1) 로사리오 성월

10월은 묵주기도의 달입니다. 가을을 맞아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특별히 바쳐 주시기 바라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시다. 저녁 기도 후 묵주기도의 성월(기도서 30-31P)를 바칩시다.

(2) 성모회 피정소식

성모회 피정이 "매력 있는 여자"란 주제로 오늘(주일) Franciscan Retreat Center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하여 저녁 5시에 돌아옵니다.

(3) 성정마르꼬 야유회 소식

성 정 마르코 야유회가 오늘(주일) 8시 미사 후 (버스출발 9시30분)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시경 성당도착 예정)

(4) 구역회

올해는 신앙공부를 합니다. 모든 신자 분 들은 구역회에 참석합니다.
10월달 주제 : “신자들의 영성(신심) 생활”

㉠ 영성생활이란? ㉡ 영성생활의 목적 ㉢ 영성생활과 기도

(5) 무료 건강검진

마운트 사이나이 심장 센타(Mount Sinai Medical Center Cardiac
Catherization Lap)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11월13일(주일) 아침 9시
부터 12시까지 실시합니다.

㉠ 혈압 ㉡ 당뇨병, 콜레스테롤 검사 ㉢ 심전도 검사 ㉣ 건강상담

(6) 한글학교 설문조사

주일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본당 한글학교 설문조사지”를 발송
했습니다. 작성하신 후 동봉된 봉투로 반송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당 뒤편에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7) 본당 모임

- 전례부 모임이 오늘(주일) 11시미사후 있습니다.
- 확대 사목회의가 다음주 19일(수) 8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 중부 브롱스 구역회가 이번주15일(토) 저녁 8시 지회남(레오)
(718) 584-2903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 중부웨체스터 구역회가 다음주(주일) 오후 5시 이상빈(아브라함)
(914) 527-5060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 꾸리아 월례회의가 다음주(주일) 11시 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연례회 모임이 23일(주일) 12시30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대건회 가을소풍을 자녀들과 함께 23일(주일) 8시 미사 후
오차드 비치 로 갑니다. 대건회원 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254.00

감사헌금 : \$ 100.00(조마가렛) \$100.00(야채 할머니)

교 무 금 : \$ 4,160.00 교육헌금 : \$ 5,063.72

허문호(완납) 김성호(완납) 함봉국 (8-10) 한성천(10)

조현중(완납) 박우복(완납) 신희원(10) 김신자(7)

은용경(완납) 조부자(9-10) 김관희(10) 최숙자(10-11)

진경란(9-10) 박세복(9) 박은영(9-10) 이수학(7-10)

권경순(9-10) 최낙범(완납) 한경수(10) 이갑조(10)

취할 때와 놓을 때

며칠 전 친구를 만났더니 하는 말이 운전면허 갱신을 했다고 한다. 그런
데 운전면허 갱신이 운전을 위한 갱신이 아니고 운전 안하는 면허로 바
꾼 것이라고. 미국 와서 40 몇 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면허 갱신을 하라
는 통지를 받고는 갱신을 하면서 운전 안하는 면허로 바꿨다고 한다. 운
전은 하지 않지만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세대는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는 시기에 들어 온 것 같아 한다. 그
친구는 운전을 하지 않는지 한 일 년쯤 됐다. 시력도 좋지 않은데다가 수
전증이 있어서 손을 움직이는 것이 좀 불편했었는데 일 년 전 어느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는 그 이후로는 아예 운전을 하
지 않는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운전을 완전히 포기했다. 하기는 어디
운전뿐이라. 나는 주위에서 정리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집을 줄이고,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취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나 역시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면 치우려고 노력한다. 얼마 전
에도 친구네 교회에서 바자를 한다고 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부엌도구,
옷 등등을 갖다 주었다. 한동안 그런 것들을 열심히 사 들였는데...지금
생각하면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물건이나, 그 어떤 관계에 애착을 갖었
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로 인해 나 자신 그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
을 느껴서였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애착을 느꼈던 것들을 내
놓는데 대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앞서는 거다. 은퇴를
할 때도 그랬다. 나는 40여 년 동안 하루같이 다니던 직장을 몇 년 전 은
퇴 했다. 물론 은퇴를 하기까지 한 3-4년 고민을 많이 했다. 할까? 말
까? 하면서. 그런데 막상 하고나니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평화로워
질수가 없었다. 직장엘 다니는 40여 년 동안 내 어깨에는 항상 커다란 멍
에를 지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할 까? 어쨌든 항상 긴장된 상태이고 책임
감에 어깨가 무거웠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드디어 그 멍에를 내려놓
는 후련함을 느꼈고, 동시에 마치 새로운 삶 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처음 원하던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운전면허
를 따고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신이 났었는가? 성취감에 우쭐
했었지만, 사실 지금생각하면 그런 성취감은 그에 대한 책임감이 동반했
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을 때 마음이 후련해 지는 것이 아
니겠는가?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취하는 시기,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놓는
시기...둘다 중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다. 잘 취하
고, 때가 되면 놓을 줄도 알아야 하니까.

우 몽은